

연구소 소식

2023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7월 5일(수) 오전 10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2023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본 심포지엄은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아동 권리 보장과 학대 예방”을 주제로 아동 권리 보장과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해 논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온라인상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실태와 과제: 셰어런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해당 발표의 지정토론에는 김형모 교수(경기대학교), 배건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김자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영아유기 실태 및 과제’를 주제로 영아유기 현황 사례와 영아유기 대응 체계에 대해 소개하였다. 해당 발표의 지정토론에는 이승미 교수(서울대학교병원), 한은희 부연구위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제1차 KICCE 유보통합 정책 세미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월) 오후 3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차 KICCE 유보통합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지원단이 주관하는 본 세미나는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 자치와 행정자치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 유보통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하봉운 경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교육자치·행정자치 간 통합 이행 쟁점과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지정토론에는 윤태섭 교수(충북대), 박재철 팀장(경기도청), 김민희 교수(대구대), 채순희 장학관(경북교육청), 최효미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2023년 제2차 KICCE 정책토론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7월 28일(금) 오후 3시 국회 제 5간담회의실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학교를 제안하다!’를 주제로 「2023년 제2차 KICCE 정책토론회」를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과 함께 개최하였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사회를 진행하고, 좌장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맡았다. 제1발제는 김경민 중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개념적 논의 및 선정 배치’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2발제는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이 ‘자격기준으로 살펴보는 유아학교와 유아특수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3발제는 박신영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이 ‘유아특수교육기관의 운영실태와 개선’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4발제는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인 ‘장애영아 학급운영에 관한 실태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였다.



유보통합 교원자격·양성 체제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보육 전문가 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7월 24일(월) 13시 30분 서울교육대학교 사향문화관에서 「유보통합 교원자격·양성 체제 개편 의견수렴을 위한 교육·보육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주최하고, 아이행복 연구자문단과 육아정책연구소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공적 이행은 국민과 학부모의 정책적 지지,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약속하였다. 포럼은 주제발표와 학회발표로 진행되었다.



유보통합에 따른 교육·보육과정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 시 방향 모색을 위한 1차 정책포럼 개최

2023년 8월 17일(목) 15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관B동 B153호에서「유보통합에 따른 교육·보육과정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 시 방향 모색을 위한 1차 정책포럼」이 개최되었다. 본 포럼은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이 주최하고, 아이행복연구자문단과 육아정책연구소의 공동 주관하였다.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과제소개'와 이정옥 교수(덕성여자대학교)의 '영유아교육과정 관련 국제동향 및 사례' 발표, 김혜금 교수(동남보건대학교)의 '유보통합 시 교육과정 개편방향에 대한 관계자 인식' 발표에 이어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학술대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8월 25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패널 연구로 조망하는 아이와 부모의 성장, 그 출발선에서'라는 주제로 「제1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본 패널 연구의 시작을 알리는 첫 학술대회로서, 1부에서는 박상희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 한국모자보건학회 김증임 회장,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이 축사를 전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정신과 김봉년 교수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김봉년 교수는 '영-유아-소아로 이어지는 뇌의 발달 및 발달과업과 양육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아동기 초기까지의 주요 발달 과업인 애착, 자기조절, 공감의 발달과 그 발달을 돕는 양육자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강연하였다. 2부 주제발표에서 이정림 선임연구위원과 김희선 동국대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연구에서 2021~2022년도에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들을 발표하였다. 이정림 선임연구위원은 조사에 참여한 임부의 특성들을 토대로 연령이 24세 이하인 임부 및 저소득 가구, 다문화 가구 임부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평가센터 민소영 센터장은 지역이나 임부 특성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희선 교수는 한국아동패널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에서의 산후 우울을 비교분석하여 보고하였으며,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최인나 센터장은 난임과 우울증, 그리고 임부와 산모들이 겪는 스트레스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9월 8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는 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논문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2008년 조사한 1차년도 본조사 데이터를 처음 공개한 2010년 이후 매해 개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논문발표와 통계워크숍을 포함한 전일 대면 학술대회로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 「제14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에서는 본격적 청소년 시기인 중학교 1학년의 데이터가 처음 공개·제공됨으로써 영유아기에서 아동기를 포함해 청소년기에 이르는 종단연구 발표가 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학원생 논문 공모 수상작은 우수상 2편과 장려상 1편 총 세편으로, 우수상에는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박세훈,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수료 이상은·편지애가 수상하였으며, 장려상에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송지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협동과정 유아교육전공 박사과정 김은지가 수상하였다.

1부 논문발표Ⅰ 세션에서는 성장발달Ⅰ-집행기능, 미디어Ⅰ-미디어 기기 중독, 부모Ⅰ-자녀양육, 학교생활 및 적응Ⅰ-교사로 8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2부 논문발표Ⅱ 세션에서는 성장발달Ⅱ-장애·보건, 미디어Ⅱ-사이버비행인식/괴롭힘, 부모Ⅱ-일가정 양립, 학교생활Ⅱ-전환기로 8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2023년 제1차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을 위한 연구 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월) 오후 1시 명동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2023년 제1차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을 위한 연구 포럼」을 개최하였다. “장애위험영유아의 조기 선별과 가족 지원 방안”을 주제로 2023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대책 방안(Ⅱ) : 부모용 선별도구 개발 및 가족 지원 방안’ 수행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위험영유아 선별, 조기개입 및 가족 지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지정토론에는 박소영 교수(한국교통대학교), 박지연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정효정 교수(중원대학교), 최진희 센터장(서초아이발달센터)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2023년 제2차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을 위한 연구 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9월 15일(금) 「2023년 제2차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을 위한 연구 포럼」을 개최하였다. 2023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 및 발달지원 종합대책 방안(II) : 부모용 선별도구 개발 및 가족 지원 방안’ 연구수행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연구포럼은 “장애위험영유아 가족을 위한 해외 국가의 지원제도 이해”를 주제로 하여 미국, 독일, 호주 및 뉴질랜드의 사례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예진 박사(University of California-Davis, MIND Institute)는 ‘미국의 장애 및 발달 지체 영유아와 가족 지원’을 주제로 미국의 장애 및 발달지체 영유아 관련 법, 제도, 지침, 지원의 실제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김용진 외래교수(강남대학교)는 ‘독일의 포괄적 조기 지원에 기반한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을 주제로 독일의 조기 지원을 위한 공적기관, 지원 서비스에 관하여 공유하였다. 최정원 책임연구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장애위험영유아 가족지원’을 주제로 호주의 영유아기 접근법(ECA)과 뉴질랜드의 인크레더블 이어스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였다.

지정토론에는 김수연 교수(경인교육대학교 특수통합교육학과), 황주희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정책연구센터), 김은영 실장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 정책 연구실)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2023년 제1차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구축 포럼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7월 21일(금)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정림건축) 김정철홀에서 「2023년 제1차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구축 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포럼은 LH 수탁연구과제인 「공공택지 내 아이돌봄 인프라 개선을 위한 통합돌봄 거점 구축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LH가 주최하고 육아정책연구소와 정림건축에서 주관하였다.

본 포럼에서는 최윤경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 모형안’에 대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인천시의회)이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 및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대해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이어 박진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통합돌봄 수요 추정’을, 우지성 본부장(정림건축)이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계획기준 마련’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의정부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형 워크숍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의정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과 함께 돌봄환경 개선을 위해 고산 지구에 처음 문을 열게 되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으로 2023년 8월 19일(토) 오후 1시 30분부터 고산 청소년센터에서 주민참여형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고산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설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향후 실수요자인 부모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2023년 5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 특히 돌봄환경 개선을 목표로 LH와 의정부시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LH는 영아, 유아,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지원을 위해 택지조성 과정에서 돌봄시설을 집적화한 통합모형으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는 정립건축사무소와 LH의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모형과 운영방안 마련을 연구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 결과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 중인 연구에 반영되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설치 운영 모형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LH는 향후 공공택지 조성 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지자체의 특성에 맞고,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효성 증진을 위해 지자체와 주민 소통의 장(場)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육아정책연구소 개발협력 정책세미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7월 25일(화) 오후 2시에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DI 국제정책대학원, ARNEC(Asia Regional Network for Early Childhood), ICESCO(Islamic World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과 ‘양질의 포용적 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개발협력 수요 진단과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였다. 본 정책세미나는 경제·사회인문연구회 협동연구「육아정책분야 국제개발협력 마스터플랜 수립」의 일환으로 세계지역별 17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부문 개발협력 수요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발협력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본 세미나는 육아정책연구소 조숙인 국제교류연구팀장의 사회로, 총 4편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태종 교수가 ‘육아정책분야 국제개발협력의 동향과 함의’라는 제목으로 발제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아시아지역 유아교육보육네트워크(ARNEC: Asia Regional Network for Early Childhood)의 Cliff Meyers 박사가 맡았다. 세 번째 주제발표는 이슬람세계교육과학문화기구(ICESCO: Islamic World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김성봉 박사가 아프리카 지역 5개국별 ECCE 현황과 성취 및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네 번째 주제발표는 본 협동연구의 총괄책임자인 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국제교류데이터정책실장이 육아정책분야 개발협력의 방향과 실행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OECD 국제세미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8월 25일(금) 오후 2시 30분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대의 유아 역량 강화(Empowering Young Children in the Digital Age)’를 주제로 「KOREA-OECD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국제세미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회원국 30여 개국이 2021년부터 지난 2년간 참여한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a Digital World’ 프로젝트의 최종보고서인 「Starting Strong VII: Empowering Young Children in the Digital Age」를 국내에 론칭하고, 그 주요 결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 장학사, 유아교육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OECD 파리본부에서 참석한 Yuri Belfali 국장은 주제 강연에서 OECD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혜택을 극대화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가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5가지 핵심 이슈(디지털 위험으로부터 유아 보호, 디지털 격차 완화, 유아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유아와 가족의 상호작용의 질 제고, 유아교원 지원 및 질 보장)를 제시하였다. 현재 OECD ECEC 네트워크 부의장인 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국제교류데이터정책실장은 OECD가 우리나라 유아교육 디지털 정책에 대한 검토보고서(Country Note)의 주요 결과 및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원과 부모의 디지털 역량 지원 사업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Bach Family Foundation & Trust-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간담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2023년 7월 14일(금) 오전 10시,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Bach Family Foundation & Trust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에는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 문무경 국제교류·데이터정책연구실장, 조숙인 국제교류연구팀장과 Bach Family Foundation & Trust의 Elijah Bach 이사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강대중 원장, 권재현 대학·학생평생교육본부장, 권선화 전국학부모지원센터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세 기관은 부모교육 관련 경험을 공유하며,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앞으로 한국 부모들에게 부모교육 자료와 정보에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Uzbekistan Republican Scientific-Methodological Center for Development of Education – KICCE 간담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9월 14일(목)에 Uzbekistan Republican Scientific-Methodological Center for Development of Education - KICCE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는 육아정책연구소 문무경 국제교류·데이터정책연구실장, 조숙인 국제교류연구팀장, 김은영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이 참석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산하의 교육 연구기관인 Republican Scientific-Methodological Center for Development of Education의 Saidjon Tojiboev 과장과 한국의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에 관한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유아교육 및 보육시스템의 운영, 교육과정, 교사교육, 평가시스템,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연구기관 운영, 통계 생산 및 관리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양국의 유아교육 및 보육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